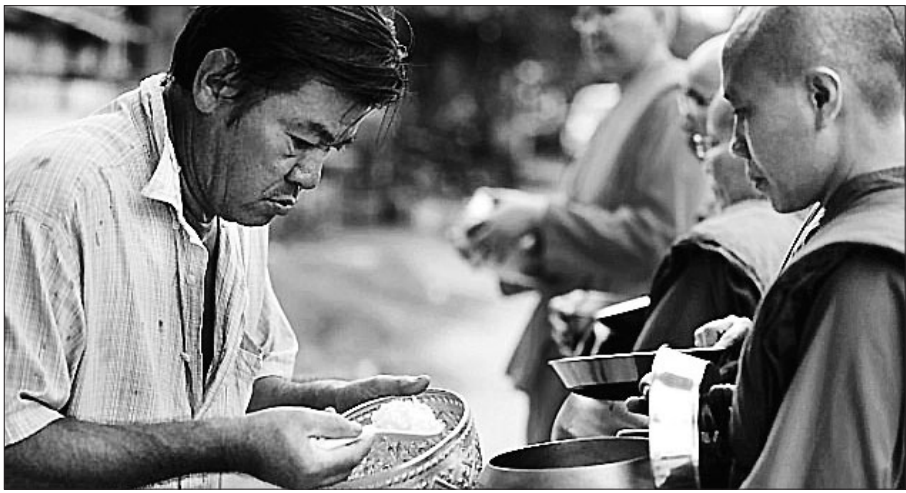


태국 불교 '비구니 수행자' 바람 분다

정부와 불교계 억압 불구 '청정 승가' 대안으로 떠올라



여성 출가가 금지된 태국에서 '비구니 수행자'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각종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태국 비구니계에 실망을 느낀 재가자들이 비구니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출처=AP통신

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길가에 늘어선 주민들이 일군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쌀, 카레, 과일, 과자 등의 공양을 올린다. 태국에서 스님들의 탁발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의 탁발은 신기한 모습이다.

이는 태국에서는 여성의 출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 대표 기구인 '태국불교협회(Samachol Buddha Sasana Muang Thai)'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구족계 수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만여 명에 이르는 태국 스님들은 모두 남성인 비구니이다. 여성은 오직 '가톨릭 수녀처럼' 흰색 옷을 입은 채 사원에서 수행자가 아닌 불자로서만 생활할 따름이다.

그런데 나콘파툼(Nakhon Pathom) 주(州)를 중심으로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

님들이 송담마카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에 주석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고 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Asia Times'에 따르면 태국의 비구니 스님은 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두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스님들이다. 그러나 이들 스님들의 태국에서 살은 녹초지 않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들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불교계 지원 정책에서 비구니 스님과 주석 사원을 제외시키고 있고 비구니 스님들 역시 그들을 배척하기는 마한가지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들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 지역 주민의 지지 속 출가를 서원하는 태국의 여성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층도 노동자, 대학 교수, 기업

인원, 언론인, 의사 등 다양하다. '여성 출가'에 대한 관심이 여성 불자들 사이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국 여성들도 구족계를 수지한 수행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은 "우리는 이제야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태국에서 비구니 스님의 온전한 수행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태국의 재가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님들은 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초기 교단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보호센터(Buddhism Protection Center)를 운영하는 텡비수 티카위(Tepvisu tthikawee) 씨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신심이 커지는 것 같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이 역경을 이기고 나면 태국에도 비구니 계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언론들 역시 '보편적인 가치로 성직자를 보아야 하며 봉건적 체제에 가둘 수는 없다'(Bangkok Post), '대중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애써야 한다'(Hindustan Times) 등 태국 불교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sia Times'는 "태국의 최고승가위원회가 '스리랑카 수계자'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이들 수계자에 대한 기부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비구니 스님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줄리안 쇼버(Juliane Schober) 아리조나주립대 교수 말을 인용하며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비구니 수행자의 모습을 스스로 조각하고 있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비구니 스님의 선구자적 결심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담마난다 스님은 출가 전 교수 불자로 활동하며 태국 불교계의 여성 불자로서는 최초로 구족계를 수지한 바 있다. 이후 송담마카야니 사원에 주석하며 공무원, 기업인 등 태국 사회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종교 캠프를 병행하고 있다.

오중욱 편집위원

태국불교협, 여성출가 불인정

스리랑카서 비구니계 수지 후 귀환

수행·포교 매진해 신도 호응UP

1백여 명 추산... 각국 언론 지지도

일을 지속해 아쉽다"며 "이런 때일수록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때다. 재가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이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ia Times'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 중심 태국 불교계가 최근 돈과 성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청정 승단을 바라는 재가불자들의 바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앙마이와 불교 활동가 본주이 도자이(Boonchuay Doojai) 씨는 "비구니 스

세계서 2번째 높은 대불상 들어선다

인도 구자라트주, 9월 5일 국제불교컨퍼런스서 설계 발표

40만㎡부지 1,300만원 예산 규모 석탑·전사·도서관 등 공원 조성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Gujarat)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불상이 들어선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은 중국 허난성 평딩산시 루산현(魯山縣) '봄 사원(Spring Temple)'에 위치한 중원대불(中原大佛)이다. 중원대불은 높이 153m의 비로자나불상이다.

구자라트주 지역에 들어설 불상은 108m로 중원대불보다 약 45m 낮고, 태국에 위치한 92m 불상보다 약 60m 가량 높

이 제작된다. 인도 북동부지역 잡지 'Northeast Today' (이하 Northeast)는 9월 14일 '구자라트 주정부 아메다바드(Ahmedabad) 북동쪽 150km 지점에 위치한 불교사원지 데브니모리(Dev ni Mori)에 108m 불상을 건립할 준비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Northeast'에 따르면 예산규모는 70만 루피(한화 약 1,300만원)로 세부계획은 9월 5일 부다가야(Bodhi Gaya)에서 열린 국제불교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 관광부 산하 'Gujarat Pavitra Yatradham Vikas Board(이하 GPYVB)'가 맡았으며, 100에이커(약 405,000㎡) 부



데브니모리(Dev ni Mori) 사원터 108m 불상 설계 조감도. 사진출처=Time Of India

지에 석탑, 공원, 사원, 전시품 및 도서관 등 완비될 계획이다.

이날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GPYVB 대표로써 참석해 26개국 4백여 대표자 앞에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불상 건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지사 역임할 당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Northeast'는 "확장 계획은 고대사원의 전통 방식을 따라 교육기관으로서 기능도 포함할 것"이라며 "일본과 스리랑카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PYVB 대변인 애닐 파텔(Anil Patel)에 따르면 예산은 여전히 수립 중이며 건축사 선정은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1년 이내 착수해 완공까지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대불상이 들어설 데브니모리 사원지는 1953년 주정부 고교학단에 의해 발굴됐으며, 최대 3세기 무렵 1개 사원과 1개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익률 기자 pak502482@hyunbul.com

네팔 스님들 '뉴욕 F/W 런웨이' 서다

프라발 구롱 초청... 네팔대지진피해 속 세계적 성원 '감사'



네팔계 미국 디자이너 프라발 구롱의 '2016 봄 컬렉션' 무대 오프닝 행사서 네팔 스님들이 축원을 올렸다. 사진출처=DailyRecord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들의 필참 의류 목록에 빠지지 않는 네팔계 미국 디자이너 프라발 구롱(Prabal Gurung)의 '2016 봄 컬렉션' 무대가 마련된 '뉴욕 패션 위크(New York Fashion Week, 이하 뉴욕 F/W)' 패션쇼 런웨이에 네팔 스님들이 등장해 화제다.

'Columbus Dispatch'는 9월 15일 "30명의 네팔 스님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장소, 패션쇼 런웨이에 올라서 깊은 감동을 주었다"며 "구롱의 '2016 봄 컬렉션' 무대 오프닝 행사 일환으로 스님들은 축원을 올리고 대지진 피해 속 네팔 국민에게 보여준 세계인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F/W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발표하며 패션쇼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간을 뜻한다. 밀라노·파리·런던 F/W와 함께 세계 4대 F/W로 꼽히는 '뉴욕 F/W'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2016 봄 컬렉션' 패션쇼에 네팔 스님들을 초대 한 구롱은 "지진 참사를 당한 네

팔 국민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구호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뉴욕 패션 산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네팔계 미국 디자이너로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이런 바람을 알게 된 네팔의 스님들이 가까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구롱은 네팔 지진 직후 지인들과 함께 크라우드라이즈(Crowd Rise)의 '네팔 구호 펀딩'을 적극 도왔다. 이에 힘입어 크라우드라이즈는 목표 금액인 75만 달러를 2주만에 모금할 수 있었다.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수많은 셀럽(Celeb)에게 주목받고 있는 구롱의 '2016 봄 컬렉션' 패션쇼는 '네팔 불교 빛깔'을 모티브로 한 색상의 옷들로 빛났다.

'Columbus Dispatch'는 "햇노란 빛이 도는 핑크색, 담황색, 갈색 등을 비롯해 추함과 노랑의 혼합색이 물든 옷들이 런웨이를 장식했다"며 "특히 추함과 노랑색 실로 수를 놓은 백색의 의상이 등장하자 수많은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다"고 전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美 베트남 스님, 도박에 빠져 사찰재산 '횡령'

베트남불교협회장, 3년 간 사찰계좌서 2억여 원 불법인출

미국서 한 불교 승려가 도박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중남부 도시 라피엣(Lafayette)에 위치한 베트남불교협회서 협회장 강 르(Khang Le) 스님이 카지노 도박에 빠져 15만 달러(한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사찰재산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New York Post'는 9월 15일 "블랙햇 중독에 빠진 스님이 뉴욕 라구나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서 체포됐다"며 "그는 브루클린(Brooklyn) 연방 법원에 승복을 입은 채로 출정했지만 그의 관할 주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 보도했다. 조사관에 따르면 르 스님은 2011년 블랙햇 열풍이 불던 당시 처음 도박에 발을 들인 후, 비밀리에 레이크찰스(Lake

Charles)에 위치한 로베르주 카지노(L'Auberge Casino)를 즐겼던 스나들었다. 그러나 그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자 사찰의 공금계좌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ew York Post'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그가 카지노 내 ATM기에서 개인 계좌와 사찰계좌로부터 인출한 돈은 약 38만 달러에 이른다"며 "르의 자신의 신분과 행동을 감추기 위해 항상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도박했다"고 설명했다.

르 스님은 캐나다서 중과차를 사기 위해 라구나디아 공항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신분이상으로 체포됐다.

한편 르 스님은 변호사 선임 후 보석 신청 중이다. 박익률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화무학인기품(11:22)	CD08-제16, 여래보살품(21:15)	제23, 약왕보살보살품(23:10)
CD03-제3, 비유품(54:2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요율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살품(19:26)
제5, 악초우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왕보살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언론샵